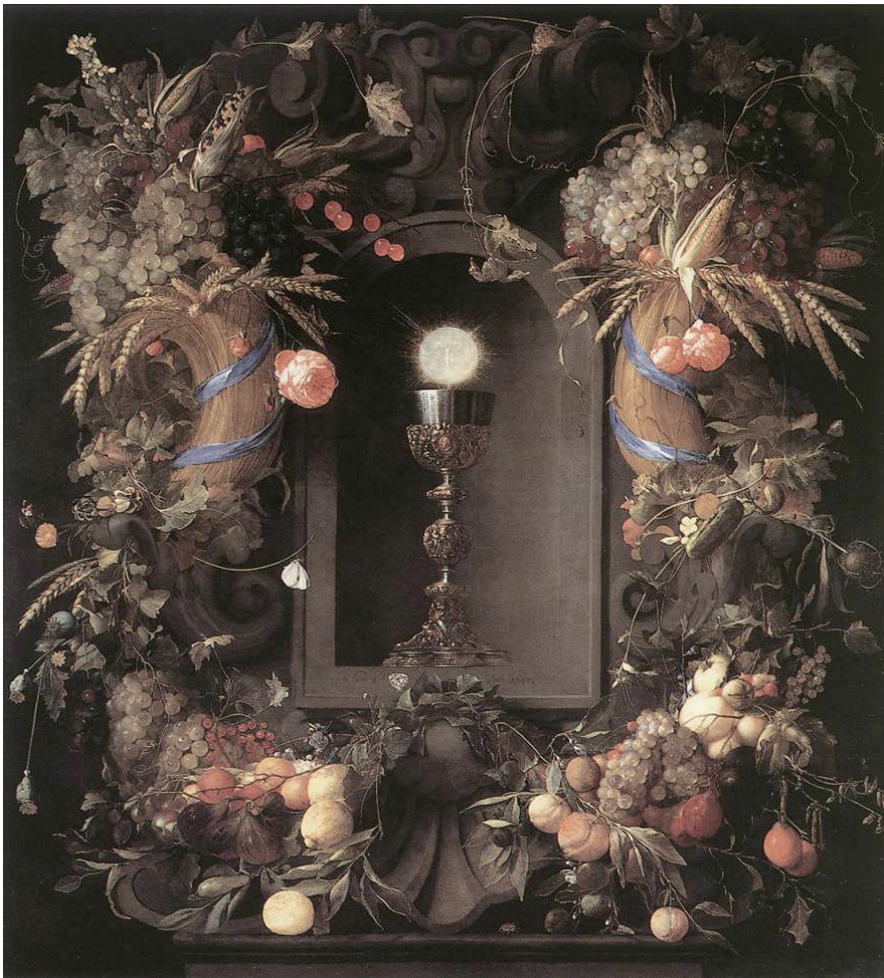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치유의 해, 성체를 공경하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 대주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20. 06. 14. (가해) 제2218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 6,54)



『꽃으로 둘러싸인 성찬례』, 얀 다비치 드 험, 1648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예술사 박물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이메일 | jubo@dgca.or.kr 홈페이지 | www.daegu.jubo.or.kr

## 왕 백신!



월막피정의집 관장 | 이진호 안토니오 신부

“먹고살기가 힘들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작금의 현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가 힘이 드는 것일까요, 살기가 힘이 드니 먹을 것이 없는 것일까요?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먹고살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겠습니까? 인생이 삶인데,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요한 4,32) 제자들 몰래 숨겨 두고 혼자 드시는 주님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요한 4,34) 주님은 과연 성체성사를 통하여 이 일을 완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뜻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고”(신명 8,3),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신명 8,16)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빵은 무엇일까요?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그럼 이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51) 어찌해서 그럴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요한 6,51) 정말 그럴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요한

6,53-54) 과연 그럴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5-56)

아하! 그렇다면 주님! 먹고살기 힘든 이 시기에 “참된 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 자비 베푸소서. 저희 먹여 기르시고 생명의 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성체송가)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 받아 마시는 그 축복의 잔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떼어 나누어 먹는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소서.(1코린 10,16-17 참조) 행여 저희에게 불행이 닥칠 양이면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죽을 인생 저 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 하고 주님 밥상 함께 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성체송가)

“먹고살기가 힘들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작금의 현실입니다. 성체성사가 코로나19에는 물론, 그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영원하고 완전한 왕 백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성체송가) 아멘! **✠**

## 아름답고 소박한 찔레꽃과 같은 삶

교구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사동본당 | 박선주 베드로

항상 6월이 되면 마음이 가슴이 설렌다. 작년에 보았던 야생화가 잘 자라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 사실 3월 초가 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직장 주변만 맴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 20일부터 미사를 참례하지 못했지만 5월 7일부터 성당에서 미사에 참례하게 되어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된 것 같다. 항상 이맘때쯤 산과 들에 나가면 은은하게 풍겨오는 매혹적인 향기를 가진 꽃이 있다. 하지만 이 꽃은 도심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꽃 향기를 찾으러 지난 토요일에 대구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을 찾았다. 이곳 수련관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하얗고 소박한 찔레꽃(들장미)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찔레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한 그런 꽃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아름다운 꽃이다.

어릴 적 할머니가 살고 있던 동네에 가면 항상 찔레꽃이 피어 있었고, 할머니는 어머니와 나를 근처 산으로 데려가 가시가 달린 껍질을 벗기고 줄기 부분을 맛보라고 하셨다. 약간 신맛이었다. 이번 주말 때도 찔레꽃 줄기를 벗겨 먹어봤지만 그때 그 맛은 아니었다. 할머니의 말씀은 예전 배고픈 시절에 붉은색이 감도는 가시가 달린 찔레꽃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간식이었다고 한다.

봄에 돌아나는 연한 찔레순은 보릿고개 시절 아이들의 요긴한 간식거리로, 비타민 C나 각종 무기질이 듬뿍 들어 있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학생들과 야생화 공부를 하러 산에 가면 나는 꼭 여러 식물들을 맛보게 한다. 맛으로 느껴보는 야생화 공부야말로 살아 있는 현장 공부인 셈이다. 어쨌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식물은 요즘 도시나 시골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야생 들장미, 그윽한 향기와 흰색의 꽃을 지닌 '찔레꽃'이다.

가수 '이연실'이 부른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보면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 (...) 엄마도 생각나고, 그리움도 생각나고..."

'찔레꽃'은 가을이 되면 빨간 열매가 양증맞게 달리는데 이것을 영실(營實)이라 하여 약재로 썼다. 산후통, 생리통, 관절염 치료에 좋고,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찔레순을 흑설탕이나 꿀과 함께 발효시켜 먹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한다.

'찔레꽃'에는 어머니의 사랑, 그리움, 추억, 향기가 있어 좋다. 6월이 가기 전에 찔레꽃 향기를 맡으러 밖으로 나가보자. 달빛에 비치는 하얀색의 찔레꽃은 더욱더 운치 있어 보인다.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이 나면 동네 산책을 해보자. 분명 찔레꽃 향기가 당신을 반길 것이다. **꽃**

## 미사 중 독서자가 독서대에 오를 때 어디를 향하여 인사를 해야 하나요?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 예절서』(Caeremoniale Episcoporum), 72항 참조) 그러므로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십자가상의 제사를 재현하는 장소이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식탁을 상징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83항 참조)

제대는 성당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제대를 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많은 성당에서 편의상 나무로 만든 제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의미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로 제대를 만드는 전통은 제대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가톨릭성당 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백성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흐른 바위는, 교부들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 준 예표입니다. 군사 하나가 창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곳에서 피와 물이 흘러 나왔는데(요한 19,34 참조), 지금도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제대에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표상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재현합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를 상징하는 이 피와 물에서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제대는 바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엇보다도 제대가 우리에게 거룩하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바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례를 거행하는 동안 제대 위에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두어서는 안 되며, 특별히 책받침대가 빵과 포도주가 담긴 성작과 성합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미사 전례』



## 양재현 마르티노 (1827~1868년)

1827년에 태어난 양재현(梁在鉉) 마르티노는 언제부터인가 경상도 동래의 북문 밖에서 살았다. 그는 동래에서 좌수(坐首)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정식 요한 회장을 만나면서 천주교 신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 그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1868년의 박해 때 마르티노는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동래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당시 그는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치자 태연하게 그들을 맞이한 뒤 관아로 끌려갔다.

이윽고 관장 앞으로 나가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자, 마르티노는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는 형벌을 달게 받았다. 또 관장이 배교를 강요하자, “절대로 천주교 신앙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문초를 받고 수군의 병영으로 이송되었다.

양재현 마르티노는 수군의 병영에서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배교를 거부함으로써 옥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옥에 들어가서는 옥졸의 꾀임에 ‘돈을 주겠대’고 약속한 뒤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옥졸은 마르티노가 집으로 돌아가자 관장에게 가서 ‘좌수가 몰래 도망쳤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이내 포졸들이 다시 마르티노의 집으로 몰려왔고, 그는 즉시 체포되어 동래 관아로 압송되었다. 마르티노의 신앙심은 이때부터 다시 굳건해지게 되었다. 그는 혹독한 형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천지의 큰 부모이신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증거하였다.

이후 마르티노는 통영에 있는 수군의 병영으로 이송되어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동래 관아로 끌려와 옥중에서 이정식 회장과 동료 교우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서로를 위로하면서 신앙을 굳게 지키기로 약속하였다.

동래 관장은 마침내 사형을 결정하였다. 그런 다음 옥에 있는 신자들을 끌어내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將臺)로 압송하였다. 이때 마르티노는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고 십자 성호를 그은 다음에 칼을 받았으니, 그때가 1868년 9월로, 당시 그의 나이는 41세였다. 순교 후 그의 시신은 가족들에 의해 거두어져 사형장 인근에 안장되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의  
2020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신명 8,2-3,14L-16ㄱ	제 2 독 서	1코린 10,16-17	복 음	요한 6,51-58
화 답 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6.25전쟁 70주년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및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매년 6월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달이며 특히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래와 같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를 권장하고 6월 25일에는 주교좌 범어대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주례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참례를 원하시는 교형자매 여러분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기간: 6.17(수)~25(목) / 방법: 미사 전후 기도문과 함께 봉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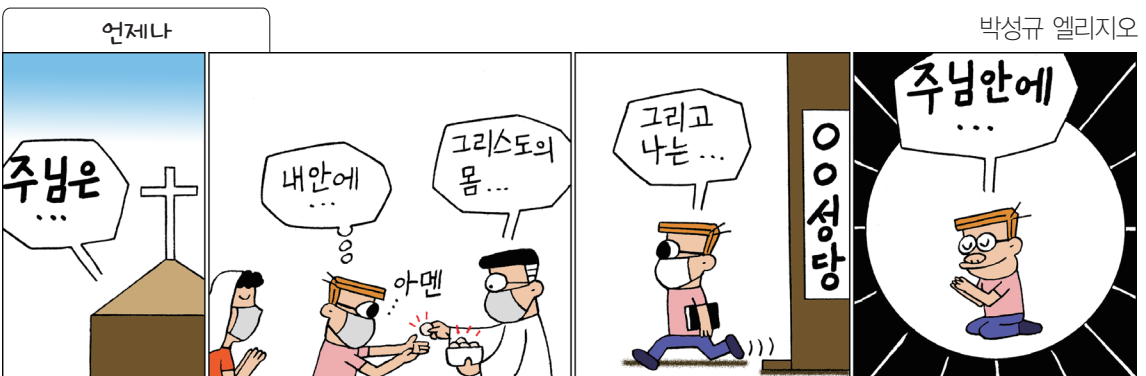
기도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109쪽 / 매일미사 191쪽)

(※ 9일 기도의 지향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일시: 6.25(목) 10:00 묵주기도, 10:30 미사 /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 신청: 각 본당 사무실

마감: 6.19(금) / 문의: 민족화해위원회, 053)254-3058



## 미사 안내

이주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6월 15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18일(목) 10:00 평화성당
---------------	----------------------	---------------	----------------------

### 성소 | 피정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2140-7414

####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6.20(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 행사 | 모임

####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6.17(수)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780-4535

#### 제15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창조질서 회복과 보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개인이나 단체 추천해주시요.  
접수: 6.15(월)~7.17(금)  
문의: CBCK생태환경위원회, (02)460-7622  
<http://www.cbck.or.kr>

### 평협과 함께하는 2020 CPBC 창작성가제

주제: 생명·평화 주제의 창작성가  
자격: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접수: 1인 1곡 출품 / 마감: 7.31(금)  
시상 내역 및 자세한 공모 요강은  
<http://www.clak.or.kr> 참조

### 기타

####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 7월 가나 강좌

일시: 7.12(일) 10:00 ~ 13:00 ※ 시간 엄수, 사전접수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혼인을 앞둔 미혼 남녀(예비 부부) / 25커플

(신청인원 초과시 혼인 날짜를 우선으로 연락드립니다.)

신청: 본당사무실 / 마감: 7.3(금) / 참가비: 2인 3만원

입금: 대구은행 504-10-131272-3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지켜주시고, 유증상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신랑각시결혼**  
전문작·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7년 경력  
053)471-0707 | 010-9688-7953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20m)

**가람소방방재(주)**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종합정밀점검 ◆소방관련기술교육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노비즈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암·재활·소화기·통증·건강검진  
**Happy! 3인인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인근 | 대표전화 | 053)670-6000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박창수(요한) 몬시뇰  
2009년 6월 14일
- 간홍모(마오로시오) 신부  
1918년 6월 16일
- 서형석(프란치스코) 신부  
1941년 6월 17일
- 최명화(베드로) 신부  
1975년 6월 17일
- 이정우(알베르토) 신부  
2018년 6월 20일

교육 | 모집 | 기타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수시 모집

모집인원: 3,017명(수시 2,635명)  
정부지원사업비 연간 약 250억원  
학생의 미래에 투자하는 대학  
가톨릭추천전형 31명 / 문의: 850-2580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 ME 주말

쇄신 주말: 7.25(토)~26(일)  
7월 ME 주말: 7.31(금)~8.2(일)  
장소: 한티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교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발성법, 오카리나, 제대꽃꽂이, 수지침,

섬유공예, 피아노,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창작사진, 원어민왕초보영어,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그레고리오성가 강좌(4기) 모집

개강: 6.21(일) 16:00(45주)  
장소: 삼덕동 토티베네딕도수녀원  
베네센터 1층 강의실  
내용: 기본이론(15주) 및 실습(30주)  
문의: (010)2805-8504

프란치스코 교육생 모집

발성법, 유희, 수채화  
반주 수업: 기초반\_평일미사 반주  
취미반\_가요, 생활 성가  
장소: 프란치스코눔(월배성당 인근)  
문의: (070)4266-0047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7.24~26 / 7.28~30 / 8.7~9  
장소: 제주성지 7곳 (성지해설)  
지도: 안성철(마조리노) 신부  
(바오로수도회)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  
문의: (064)805-989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하반기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안내, 도서,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여  
(비신자 포함)  
문의: 650-4442 / (010)2586-4442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8~9

SOS프란치스코의집(요양원) 어르신 모집

위치: 대구 동구 방촌로1길 17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급여대상자)  
문의: 986-2077  
http://sos-silver.or.kr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임자(아가다),  
박만식(도미니꼬)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청도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오픈

대상: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하신 분  
(암 환자 환영)  
문의: (054)373-3955 / (010)5225-4538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증,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분 출구)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전증 학회장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선우(마리아)  
♥ 교통족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장 무료 | 영업시간 11:00~19:00  
☎ 053)428-7989 | 010-4439-9991  
♥ 예쁜 선물 증정 ♥

**수맥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 1588-5335

35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달성피부과  
아토피·만성피부  
보톡스·탈모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베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리스토리결혼정보**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1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신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